
		보 도 자 료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2년 2월 15일(화) 총 2매		 환경특별시 인천
담당 부서	시설계획과	담 당 자	· 기반시설팀장 이인섭 ☎ 440-1711 · 담당자 신유정 ☎ 440-1713		
사진(이미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일 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북부권 완충녹지 조성 도시관리계획(안) 재공람 실시 - 서구지역 68만㎡ (약 21만 평)규모 ... 대기정화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기대 -

인천시는 북부권에 68만㎡(약 21만평, 축구장 95.5개 면적) 규모의 완충녹지 조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녹지)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오는 28일까지 재공람을 실시한다.

북부권 완충녹지 조성사업은 검단 서북부지역의 산업단지 및 공장밀집 지역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등의 공해로부터 인근 주거지역을 보호하는 동시에 충분한 도심녹지를 확보해, 북부권의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은 지난 9월부터 주민들의 의견과 관계기관(부서)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차례의 분과위원회 결과 등을 반영하여 지난 1월 2022년 제1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 수용됐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현장조사와 주민의견 등을 토대로 주변현황, 지형, 생태환경 등을 고려해 양호한 임야·생태축을 연계 검토했고, 규

모있는 완충녹지(기준폭원 80m)를 조성해 단절된 한남정맥 생태축을 확보하는 수정(안)을 종합적으로 결정했다.

시는 수도권매립지와 연결을 위한 녹지를 추가해 녹지의 연결성을 강화했으며, 주민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연부락의 입구를 제척하는 등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했다.

완충녹지가 조성되면 공원·녹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북부권 지역에 대규모의 쾌적한 도시환경이 갖춰져 지역주민 및 산업단지 근로자가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진다.

더불어 공원-녹지-수변이 연계된 그린네트워크로서의 역할과 주거지역과 산업지역을 공간적으로 구분하여 도시공해를 완화하는 도시 숲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재공람에 따른 관련 서류는 인천시청 시설계획과, 서구청 도시계획과에서 14일간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다.

이원주 시 시설계획과장은 “환경적으로 열악한 서구지역에 완충녹지를 조성하여 기후완화, 소음감소, 대기정화 등의 효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친환경 미래 도시로 발돋움하기를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